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유승희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Influence of Stress Coping Typ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Major Satisfaction on Life Stress of Nursing Students

Yu, Seung Hee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Vision College of Jeonju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J시에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 146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8년 5월27일부터 2018년 5월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과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교수-학생 관계, 전공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수-학생 관계였으며($\beta = -.34$, $p < .001$), 29.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9.70$, $p < .001$).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간호, 대학, 학생, 생활, 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ess Coping Typ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Major Satisfaction on Life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 from 146 nursing students, May 27 to May 30, 2018 at a college in the J city.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through SPSS 20.0/window statistical analysis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pon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Major Satisfaction the correlation was significant.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beta = -.34$, $p < .001$) predict 29.5%($F = 9.70$, $p < .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various programs to improve professor - student interac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universities, students, life,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Yu, Seung Hee(yseunghee@naver.com)

Received July 27,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August 18,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지각하는 능력이 발생하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한다[1]. 대학생들은 다른 시기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전공과 관련된 학업 스트레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동료들과의 관계, 취업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접하며 갖는 긴장감, 1,000시간이상의 임상실습 및 국가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대학생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생활스트레스가 지적되고 있다[3]. 생활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열등감과 자신감의 저하 등 정신적 증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생활스트레스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이 어려워 휴학 또는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4]. 또한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생활에서의 불균형은 수면장애, 두통, 소화 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건강 상태에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5,6]. 대학생들의 심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활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대학 진학 후에도 전공학과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혼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발생한다[7].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이 적성과 흥미에 어느 정도 일치하여 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며[8], 선택한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후 단기 이직과 조기 퇴사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적절한 수준의 생활스트레스는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극하지만 생활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9]. 대학생활 중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생활스트레스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인이 같더라도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 요인의 발생빈도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다[10]. 동일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이 상황 등에 따라 그것을 인지하는 영역과 반응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의 교류관계에서 내/외적 요구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견디려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노력이며, 스트레스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려는 노력이다[11].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때 개인이 경험하는 형태나 대처방식이 차이가 있으므로 스트레스 대처 유형은 반드시 생활 스트레스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간호대학생은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의 범위가 축소되기도 하고 소외감과 대인관계 갈등을 겪거나 상대적인 열등감을 경험한다. 선행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12], 자살[13]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해 연구되어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좀 더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향요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수-학생 상호작용(Professor-student interaction)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높게 하고, 학생들에게 정체감, 자신감에 영향을 주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게 한다[14].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따라 개인이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는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에 대해 상호관련적인 개념을 조사하고 간호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생활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의 4년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 익명성 보장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편의 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선행문헌[15]을 참고하여 회귀분석에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2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의 수(Number of predictors) 13일 때 최소 표본 수는 145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6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하거나 무응답 설문지 등 사용이 불가능한 설문지 14명을 제외한 14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는 전경구와 김교현[16]이 개발한 도구를 이지영[1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차원의 이성친구, 동성친구, 가족문제, 교수문제 4개 요인과 당면과제 차원의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애문제, 가치관 문제 4개 요인,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척도는 '전혀 받지 않는다' 1점, '매우 자주 받는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지영[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과 Lasarus[18]가 개발한 6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대처방식 척도인 The Way of Coping Checklist를 토대로 하여 김정희와 이창호[19]가 번안하고 수정한 후 박주영[20]이 선별한 총 2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유형은 적극적 대처인 문제집중적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으로 구성되며, 소극적 대처인 정서 완화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척도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빈번하게 사용됨을 의미한다. 박주영[20]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이다.

2.3.3 교수-학생 관계

Fisher[21]의 교사-학생관계 척도(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를 지은림과 김성숙[22]이 수정하고 한송이[23]가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과 신뢰감의 2개 하위요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척도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송이[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3.4 전공만족도

하혜숙[24]이 개발한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를 김계현과 하혜숙[25]이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 관계만족 3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척도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혜숙[25]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다.

2.4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5월27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였으며, 해당 학과장으로부터 연구 수행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보조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참여를 철회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 제출 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window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차이는 t-test, Analysis of Variance(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파악하였다.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 8.9%, 여자 91.1%였고, 학년은 1학년 28.1%, 2학년 27.4%, 3학년 20.5%, 4학년 24%였다. 가족 경제수준은 보통이 82.2%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를 포함한 기타를 제외하고 개신교가 34.95%로 가장 많았다. 거주 형태는 자가 61.6%, 기숙사 26.7%였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76.7%로 많았다. 휴학 생각이 있는 경우는 41.8%였으며, 대인관계 정도는 보통이 58.9%가 가장 많았고, 조연 대상은 친구가 67.8%로 가장 많았으며 선배 및 교수는 2.7%로 가장 적었다.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9%였다.

Table 1. General/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n=1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3	8.9
	Female	133	91.1
Grade	1st	41	28.1

	2nd	40	27.4
	3rd	30	20.5
	4th	35	24.0
Economic status	High	17	11.6
	Middle	120	82.2
	Low	9	6.2
Religion	Protestantism	51	34.9
	Budism	4	2.7
	Catholic	15	10.3
	etc.	76	52.1
Residence status	Parents	90	61.6
	Dormitory	39	26.7
	Live alone	17	11.7
Group activity	Yes	34	23.3
	No	112	76.7
Think of absence	Yes	61	41.8
	No	85	58.2
Interpersonal relation satisfaction	Satisfied	58	39.7
	Moderate	86	58.9
	Difficult	2	1.4
Main advisor	Family	38	26.0
	Friend	99	67.8
	Superior	4	2.7
	etc.	5	3.5
Part-time	Yes	124	84.9
	No	22	15.1

3.2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정도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생활스트레스는 2.12±0.71점,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3.13±0.50,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3.38±0.67, 전공만족도는 3.59±0.55이었다.

Table 2. Frequency of each variable (n=146)

Variables	Items	M±SD	
Life Stress	50	2.12±0.71	
Stress Coping Type	24	3.13±0.50	
		Active Coping	3.81±0.79
		-Problem focus	3.72±0.74
		-Socially supported	3.91±1.08
		Passive Coping	3.71±0.69
		-Affective coping	3.33±0.81
		-Make a wish	4.09±0.90
Instructor- student interaction	18	3.38±0.67	
Major Satisfaction	18	3.59±0.5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관계, 전공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는 학년(F=4.44, p=.005), 휴학생각 여부(t=3.50, p=.001), 대인관계 만족도(F=3.88, p=.02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3,4학년이 1학년보다 스트레스가 높았고, 자취하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교수-학생 관계는 학년(F=10.33, p<.001), 휴학생각 여부(t=-2.58, p=.011), 대인관계 만족도(F=8.8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1,2학년이

3,4학년보다 교수-학생 관계가 높았고,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거나 보통인 경우가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성별(F=9.39, p=.003), 학년(F=10.00, p<.001), 휴학생각 여부(t=-3.10, p=.002), 대인관계 만족도(F=3.32, p=.03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1학년이 2학년보다 높고, 2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으며,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어떠한 특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4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관계

Table 3.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Variable	Categori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Major Satisfaction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2.28±0.75	.72	.397	3.13±0.29	-.00	.988	3.30±0.77	.20	.655	3.16±0.68	9.39	.003
	Female	2.11±0.71			3.14±0.52			3.39±0.66			3.64±0.52		
Grade	1st	1.82±0.52	4.44	.005 (c,d>a)	3.07±0.63	.62	.615	3.65±0.51	10.33	<.001 (a,b>c,d)	3.87±0.52	10.00	<.001 (a>b>c)
	2nd	2.12±0.69			3.16±0.54			3.61±0.62			3.70±0.50		
	3rd	2.28±0.77			3.22±0.34			2.98±0.68			3.26±0.60		
	4th	2.34±0.78			3.11±0.41			3.16±0.66			3.44±0.38		
Economic status	High	2.33±0.88	2.34	.100	3.16±0.57	.13	.876	3.63±0.75	1.42	.245	3.64±0.58	.15	.865
	Middle	2.07±0.67			3.13±0.50			3.36±0.63			3.58±0.54		
	Low	2.49±0.81			3.21±0.46			3.24±0.95			3.65±0.67		
Religion	Protestantism	2.04±0.63	2.16	.960	3.11±0.45	.42	.739	3.34±0.64	1.63	.186	3.58±0.52	1.19	.315
	Budism	2.17±0.77			3.14±0.58			3.42±0.66			3.57±0.55		
	Catholic	2.90±0.96			3.30±0.24			2.78±0.88			3.28±0.87		
	etc.	2.19±0.77			3.24±0.56			3.59±0.73			3.80±0.55		
Residence status	Parents	2.08±0.72	2.73	.069	3.08±0.46	1.78	.173	3.29±0.61	2.40	.094	3.56±0.55	1.95	.145
	Dormitory	2.05±0.69			3.25±0.61			3.56±0.68			3.37±0.49		
	Live alone	2.49±0.67			3.21±0.43			3.46±0.86			3.46±0.65		
Group activity	Yes	1.93±0.58	3.25	.074	3.02±0.62	2.49	.117	3.44±0.58	.27	.601	3.68±0.62	1.15	.285
	No	2.18±0.74			3.17±0.46			3.37±0.70			3.57±0.53		
Think of absence	Yes	2.36±0.69	3.50	.001	3.09±0.49	-.86	.392	3.22±0.71	-2.58	.011	3.43±0.56	-3.10	.002
	No	1.95±0.68			3.17±0.51			3.50±0.62			3.71±0.51		
Interpersonal relation satisfaction	Satisfied	1.99±0.71	3.88	.023 (c>a,b)	3.18±0.55	.518	.597	3.56±0.59	8.80	<.001 (a,b>c)	3.70±0.57	3.32	.039 (a>c)
	Moderate	2.19±0.69			3.12±0.47			3.30±0.67			3.54±0.52		
	Difficult	3.22±0.74			2.88±0.65			1.86±0.51			2.86±0.96		
Main advisor	Family	1.91±0.62	1.09	.354	3.12±0.66	.59	.623	3.44±0.57	.49	.688	3.68±0.51	2.23	.088
	Friend	2.16±0.71			3.17±0.48			3.41±0.66			3.61±0.52		
	Superior	2.09±0.91			2.90±0.27			3.07±0.90			2.93±0.69		
	etc.	2.51±0.61			2.99±0.23			3.64±0.93			3.32±0.68		
Part-time	Yes	2.11±0.69	.20	.655	3.11±0.49	2.63	.107	3.36±0.67	0.94	.335	3.59±0.55	0.09	.766
	No	2.19±0.84			3.30±0.58			3.51±0.70			3.63±0.56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는 교수-학생 상호작용($r=-.487, p<0.01$), 전공만족도($r=-.406,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이다.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N=146)

Variables	Stress Coping Type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Major Satisfaction
	r(p)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123 (.138)		
Major Satisfaction	.186 (.025)	.550 (<.001)	
Life Stress	-.044 (.597)	-.487 (<.001)	-.406 (<.001)

3.5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생활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학년, 휴학에 대한 생각, 대인관계 만족도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입력 및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70, p<0.001$).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641~.945이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9~1.56으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5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교수-학생 관계였으며($\beta=-.38, p<0.001$), 설명력은 26.6%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tress (N=146)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4.1	.56		7.30	<.001		
Stress Coping Type	.06	.10	.04	.55	.583	.945	1.06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36	.09	-.34	-3.85	<.001	.643	1.56
Major Satisfaction	-.21	.12	-.16	-1.80	.074	.641	1.56
Grade	.03	.05	.06	.69	.495	.797	1.26
Absence Thinking	-2.22	.11	.11	-2.02	.046	.896	1.12
Satisfaction ¹⁾	.06	.10	.10	.56	.579	.918	1.09

1) Interpersonal relation satisfaction
AdjustR²=.295 (F=9.70,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전공만족도 관계를 파악하고, 생활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알아보려고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2.12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정경순, 박의정[26]의 연구결과 2.36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학과 전공 대학생 1.67점[27], 여자 대학생 1.71점보다 매우 높았다[28]. 이는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대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9]. 또한 1학년의 경우 1.82점, 3학년 2.28점, 4학년의 경우 2.34점으로 3,4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국가고시 과목이 집중되며 임상실습이 진행되는 학년에 생활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과정이 엄격하고 국가고시라는 커다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과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3, 4학년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끊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라 다른 중재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3.81점,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3.9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연구한 김정엽[30]의 연구결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3.35점,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3.34점 보다 적극적 스트레스가 높게 측정되었다. 김정엽[30]의 연구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31] 연구대상자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대처방식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교수-학생 관계 및 학생 별 지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관계는 3.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이은숙과 봉은주[32]의 연구결과 3.71점보다 낮았다. 이은숙과 봉은주[32] 연구에서 대상자가 2학년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러한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여 이러한 차이를 보였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5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박현정과 오재우[33]의 연구결과 3.82점과 유사할 수

준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이다. 박현정과 오재우[33]의 연구 대상자는 3,4학년 학생의 비율이 83.3%로 본 연구에서 모든 학년 학생들이 비슷한 분포로 참여했던 것과 상이하다. 이러한 참여 대상자의 학년 및 연령이 전공만족도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정도는 학년, 거주형태, 휴학에 대한 생각여부, 대인관계 만족 정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와 차이가 없었던 정경순, 박의정[26] 연구와 일치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보다 낮은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정은이와 박용한[3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에서 교수-학생 관계 정도가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활스트레스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박제일[35]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경제 상태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오경희[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26,37]. 각 연구마다 자료수집 시기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수-학생 관계 및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활스트레스는 교수-학생 관계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길은하[38]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고 생활스트레스와 교수-학생 관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없어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교수-학생 관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수-학생 관계가 좋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낮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교수-학생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및 교수-학생 관계에 영향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관생도의 생도생활적응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이 스트레스였고[39],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쳤다[37]. 교수 학생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40],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1]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교수 학생 관계에 따라 생활스트레스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교수-학생 관계가 생활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을 갖고[41]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생 관계에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다[4-6, 12-14].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정해진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 및 대학의 연계부서의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이 간호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의 간호라는 개념을 형성하여 스스로가 전공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42].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전공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교수-학생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유관부서 간의 협력으로 대학차원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발된 연구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생활스트레스를 비교해 보는 것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불가피한 스트레스원이 있다면 그 스트레스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수와 학생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 방법 또한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점으로 다른 학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휴학에 대한 생각여부, 대인관계 만족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교수-학생의 긍정적 관계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고려되어야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J. Kang. (2020). The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life stress,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4), 461-467.
DOI : 10.14400/JDC.2020.18.4.461
- [2] M. H. Lee & M. S. Park. (2014).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863-872.
DOI : 10.5392/JKCA.2014.14.12.863
- [3] S. H. Kang & D. S. Ra. (2013).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Senior Student' Universit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4), 49-71.
DOI : G704-000387.2013.20.4.004
- [4] S. Y. Roh. (2017).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Growth And Development*, 25(2), 203-209.
- [5] C. Jimenez, P. M. Navia-Osorio, C. V. Diaz. (2010). Stress and health in novice and experienc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6(2), 442-455.
DOI :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9.05183.x>
- [6] S. H. Choi & H. Y. Lee. (2014). Influence o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of Anxiety, Un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08-816.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619>
- [7] M. H. Yang, M. J. Park & H. J. Kim. (2010). The Effects of Congruence, Score Elevation & Types of Interest o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2), 137-156.
DOI : G704-000975.2010.29.2.001
- [8] Y. K. Au. (2011).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12(5), 1793-1811.
DOI : 10.15703/kjc.12.5.201110.1793
- [9] I. O. Sim. (2011). Stress and Its coping strategies among Newly Graduated Nurses.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3, 147-162.
- [10] C. H. Hwang. (2012). Analysis of Stress for a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4(1), 73-82.
- [11] J. H. Ha.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Stress, the Ways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College Adjustment.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7(2), 595-611.
- [12] S. B. Kim. (2019). The Effects of School-life Stress on the EBD College Students' Depression Residing in the Dormitor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The Research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3), 1-16.
DOI : 10.23944/Jsers.2019.09.58.3.1
- [13] Y. E. Jang & M. A. Kim. (2019).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0(2), 395-408.
DOI : 10.35873/ajmahs.2019.9.11.093
- [14] E. I. Jeong &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fessor Trust Scale(P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8(2), 405-426.
- [15] J. K. Kim. (2014). A Review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47-59.
DOI : 10.5977/jkasne.2014.20.1.47
- [16] K. K. Chon & K. H. Kim. (1991). Development of the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 A control the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137-158.
- [17] J. Y. Lee. (2007).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 Kongju University, Kongju.
- [18] S. Folkman & R. Lazaru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50-170.
- [19] J. H. Kim & J. H. Lee.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y of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Behavioral Science Research Center*, 7, 127-138.
UCI : I410-ECN-0102-2009-180-007374353
- [20] J. Y. Park.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o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1] Fisher, G. Laura. (2001). *Comparing writing with interviews and exams as assessments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derivativ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 [22] E. L. Chi & S. S. Kim. (2004). Comparing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Pusan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 83-101.
- [23] H. J. Kim & S. Y. Han. (2009). The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Dance Ability Achievement.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1*, 1-19.
- [24] H. S. Ha. (1999).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Seoul University, Seoul.
- [25]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1(1)*, 7-20.
- [26] K. S. Jeong & E. J. Park. (2017). Correlations between Life Stress, Sleep Quality,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5(4)*, 67-76.
- [27] H. C. Choi. (2013). Moderating Effectiveness of the Spiritual Resilience in Effects of College Life Stresses on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 Academy Of Church Social Work, 22*, 43-70.
- [28] Y. R. Lee & N. J. Kim. (2014). An Structural Analysis of the Effect of Life Stress and Eating Disorders on the Mental Health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81-101.
- [29] Y. S. Song. (2013). Effects of a Meditation Program on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 Quality of Life with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965-974.
- [30] C. Y. Kim. (2006). Self-Differentiation,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38-247.
- [31] M. S. Ju, Y. R. Lee, S. H. Kim. (2012). Nursing Students' Stress Level, Source and Coping.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19(2)*, 195-203.
- [32] E. S. Lee, B. E. Ju. (2017).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U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107-114.
- [33] H. J. Park, J. W. Oh. (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17-426.
DOI : 10.14400/JDC.2014.12.12.417
- [34] E. I. Jeong & Y. H. Park. (2008). Relations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9(1)*, 79-93
DOI : 10.15753/aje.2008.9.1.004004
- [35] J. I. Park. (2007). A Study on Personality and the Ways of Coping for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15*, 1-22. DOI : 10.14400/JDC.2019.17.3.353
- [36] K. H. O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Physical/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Sahmyook University, Seoul.
- [37] Y. A. Song & Y. O. Ha. (2018).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4(2)*, 139-145.
DOI : 10.14370/jewnr.2018.24.2.139
- [38] E. H. Kil. (2016). Life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Satir's Communication Style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1(2)*, 155-166.
DOI : 10.15715/kjhcom.2016.11.2.155
- [39] S. Y. Choi, M. R. Yoo & M. J. Lee.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adets' Life Adjustment, Stress,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in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Military Health Policy Research Center, 32(1)*, 1-13.
- [40] E. S. Lee & E. J. Bong. (2017).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107-114.
- [41] J. H. Kwon & B. S. Choi. (2020).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 For First Grade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297-304.
- [42] H. J. Park, J. W. Oh. (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17-426.

유 승 희 (Yu, Seung Hee)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 약물이행, 비판적사고, 간호대학생

· E-Mail : yseunghee@naver.com